

삼겹살에 상추쌈은 사치?...돼지열병 발생 가격 비상

‘돼지열병 휩쓴’ 中, 전년대비 가격 47% 올라 확산 여부 따라 공급량 급감 우려 가격 영향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돼지고기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확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얼마나 더 확산하는지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농가 및 소유주가 보유한 2개의 농가의 돼지 3950두를 살처분했다고 밝

혔다. 국내 양돈농가는 약 6300여개, 사육두수는 1000만~1200만 마리 정도로 파악된다. 이번 판정으로 3950마리가 살처분됐지만 이후가 문제다. 초동 대응에 실패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휩쓴 중국은 가격이 급등했다. 이달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

달 중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대비 4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발표했던 27% 상승보다 더 가파른 오름세다.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백신 등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살처분 이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확산될 경우 공급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사육두수 증가에 수요감소가 맞물려 최근 수개월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추보다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1~7월 1가구당 돼지고기 구매량은 평균 1.86kg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돼지고기 가격도 1kg 당 12.6% 하락한 3824원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내와 다르게 글로벌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이후 꾸준한 상승세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8월 식량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국제 돼지고기의 상승으로 육류 가격은 올 2월 이후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주요 국가로 번지면서 돼지고기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돼지고기 가격은 당장 큰 영향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후 확산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닌데다 감염된 돼지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는 만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일할 생각 없다”...한국의 청년 무직 ‘니트족’ 증가세

2017년 기준 연간 손실 49조원...GDP의 약 2.7%

우리나라 청년층 니트족(NEET)의 비중이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니트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7년

기준 49.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7%에 이르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니트족이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직업도 없으며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는 상태의 젊은이로, 현재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가리킨다.



“가을이 제철” 배처럼 아삭한 태추 단감 17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배처럼 아삭하고 과즙도 풍부한 ‘태추 단감’을 선보이고 있다. 아삭한 식감이 배와 비슷하다고 해 ‘배 단감’이라고도 불리는 ‘태추 단감’은 9~10월이 제철로, 일반 단감보다 약 10% 정도 더 달콤하고, 과즙이 많으며, 과육이 많아 세척 후 그냥 먹을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층 니트의 비중을 추정할 결과 니트의 비중은 2017년에 21.2%를 기록했으며 니트의 비중은 그동안 부침이 있었지만 2015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경연은 니트에 따른 손실을 계량해 연간 경제적 비용을 추정할 결과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도에 34.7조원을 기록하였는데 2017년에는 49.4조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은 2010년에 2.6%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2.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니트의 성별·학력 등에 따른 특성으로는 남성의 니트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니트 비중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니트의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한편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으면 니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심’ 잡은 갤럭시노트10

역대 최단기간 100만대 돌파

전작 대비 2배 이상 빨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이 역대 최단 기간에 100만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출시 25일만인 지난 16일 갤럭시노트10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노트9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지난 8월23일 국내 출시한 갤럭시노트10 시리즈는 5세대(5G) 이동통신 전용 모델로 △16cm(6.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노트10 △17.27cm(6.8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노트10플러스로 나뉜다.

갤럭시노트10플러스는 저장 용량에 따라 다시 256·512기가바이트(GB)로 나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모델별 판매 비중은 갤럭시노트10이 37%, 갤럭시노트10플러스가 63%다.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노트10이 출시되면서 여성 구매자 비중이 전작 대비 약 10% 증가한 약 40%를 기록한 것



이 특징이다. 5G 상용화에 따른 고화질 영상 및 게임을 즐기는 20대의 구매 비중도 전작 대비 5% 증가한 약 20%를 기록했다.

판매 확대는 전용 색상 출시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KT의 경우 자사 전용 모델에 ‘아우라 레드’ 색상을 판매 중인데 이 색상을 선택한 구매자가 전체의 3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70%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노트10에 오른쪽 버튼을 모두 없애고 화면 배젤을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등 ‘세련된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채택하는 한편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레드, 아우라 블루 등의 색상을 채택해 젊은 계층을 겨냥한 컬러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